

## 등록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록

1 일 시 : 2017.12.15.(수) 11:00~13:00

2 장 소 : 종합관 12층 교직원식당(코너스톤)

3 참석위원 : 김민구, 윤호섭, 김대중, 김주용, 이성호, 박수빈, 오설빈, 김천호

불참위원 : 김경희, 윤재필, 정소영

### 4 회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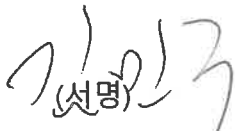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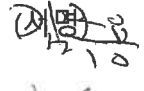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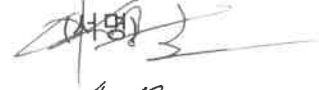

- 김민구 위원장이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다
- 위원장이 1차 회의록을 위원들에게 검토를 요청하다
- 위원들은 수정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김민구 위원장이 최종 회의록 내용을 확정하다
- 위원장은 지난 회의 불참했던 위원을 소개하고 지난 회차에 논의하였던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 교직원위원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국가장학금 등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본 위원회에서 등록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위원장은 최종 동결이 되어도 현행법상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심의·의결하고, 평의원회, 교무회의, 이사회를 거쳐 최종 등록금이 결정됨을 설명하다
- 위원장은 지난회의에서 요청한 2018학년도 본예산 수입 대비 지출 불일치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간사에게 설명을 요구하다
- 간사는 2018학년도 본예산 수입 대비 지출 불일치 금액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 학부, 일반대학원 수업료인상, 특정목적기금인출 추가편성, 각 부서 예산 추가 축소 등을 포함하여 설명하다
- 위원장은 시설유지 보수 등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안전에 위험할 수 있음을 말하다
- 전문가위원은 최저임금에 따른 용역비 상승 금액에 대해 문의하다
- 간사는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경비, 청소, 시설 용역비가 전년대비 약 8억원이 상승하였음을 답변하다
- 교직원위원회가 작년에 전산망 및 서버 노후화로 인한 장비 교체 사업을 보류하였는데, 상당히 위험한

-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었는지 문의하다
- 간사는 일부 전산망은 2016년 결산 이월금으로 2017학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보완하였으며, 전산서버는 2개년을 계획하여 신규서버로 교체할 계획임을 답하다
  - 학생위원이 재직자 전형 학과와 그와 관련된 국고사업에 대해 문의하다
  - 간사는 2017학년도에 공과대학 융합시스템학과 신입생이 입학하였으며, 2018학년도에는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가 신설되어 신입생이 입학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제지원 국고사업 7억원을 유치하여 재직자전형 2개 학과에 집중 투입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학생위원이 2018학년도에도 평생교육체제지원이 있는지 문의하다
  - 간사는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은 1년 단일사업임을 설명하다. 2018학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 학교가 별도로 제안하여 국고를 유치해야 한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은 학교가 연간 지원받는 국고의 규모를 문의하다
  - 간사는 국가장학 지원을 포함하여 260억원 정도이며, 국가장학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원은 약 120억원이라고 답변하다
  -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전입금 규모와 향후 변동폭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다
  - 간사는 2018학년도에 본교 54억원, 의과대학부문 36억원으로 교비전체 80억원이라고 답변하다. 그리고 2019학년도부터는 간접비 비율이 감소하여 약 15억원의 전입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여 연구과제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변하다
  - 교직원위원이 지출예산 조정금액 중 직원에 대한 교육비를 과하게 축소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다
  - 간사는 고정성 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재정여건상 모든 부서의 지출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답하면서 양해를 구하다
  - 위원장은 직원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하다
  - 간사는 직원의 휴가는 휴가축진제를 통해 휴가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상황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기에 2018학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음을 설명하다
  - 교직원위원이 법인전입금 변동 추이에 대해서 문의하다
  - 간사는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교원수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 교직원보수자연증가분, 사학연금부담비율 증가가 있으며, 이 외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라

- 퇴직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과거에는 공단에서 부담하였으나 현재는 40%를 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어 퇴직자 증가에 따른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간사는 이에 따라 법인에서 학교로 전출하는 법정부담금 실제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법정부담금비율만을 가지고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경향이 있어 이를 다시 설명하다
  - 교직원 위원이 재정악화로 기금인출만을 하고 있는데 적립 없이 인출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다
  - 간사는 운영성 경비를 위한 기금인출은 불가하며 단일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인출하고 있는 현 상황을 설명하며, 학교 재정 악화로 2015학년도 이후 본부에서는 등록금재원으로 건축기금적립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다
  - 전문가위원이 학교재정이 한계에 도달 한 것 같다고 말하다
  - 위원장이 학교운영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문의하다
  - 간사는 현재 2016년 결산 기준 약 50% 라고 답변하다
  - 위원장은 인건비 비율이 50% 넘을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이 매우 위험한 것임을 말하다
  - 교직원위원이 교직원 보수는 최종 노조합의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나, 작년에 임금이 동결되어 올해는 불가피하게 인상이 불가피하며, 인상시 재정적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산서상에 인상률 1%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
  - 위원장은 교직원 보수는 노조와 학교간의 임단협에 의한 것으로 인상률이 결정되면 추경에서라도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다
  - 학생위원이 입학전형료에서 수지차액이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하다
  - 간사는 입학전형료수입의 수지차액은 발생할 수 없으며 , 만약 차액이 발생하면 수험생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답변하다
  - 학생위원이 작년과 같은 예산요구서를 열람할 것을 요청하다
  - 간사는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하며, 열람은 기획처 예산팀 사무실에서만 가능하다고 답변하다
  - 위원장은 오늘 논의 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 등록금책정(안)을 차기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하고, 추가 질문이 있는지 질문하다
  - 김민구 위원장은 추가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차기 회의는 12월 18일(월) 오후 4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2차 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2017. 12. 15.(수)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김민구		(서명)	위원	오설빈		(서명)
위원	윤호섭		(서명)	위원	김경희		(서명)
위원	김대중		(서명)	위원	김천호		(서명)
위원	김주용		(서명)	위원	윤재필		(서명)
위원	이성호		(서명)	위원	정소영		(서명)
위원	박수빈		(서명)				